

# 영광군, 도서지역 찾아 농기계 수리

### 이들간 도서지역 송이도 찾아 지도·교육 등 1만원 미만 부품비·수리비 무상 서비스 제공

영광군은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 수리의 일환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도서지역인 송이도를 찾아 농기계 수리점검 및 수리지도, 안전교육, 폐농기계 수거활동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는 사용빈도가 높은 경운기와 예초기 등을 중점 수리하는 한편 간단한 농기계 고장을 농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물 배부, 안전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특히, 농기계 수리 시 1만 원 이상의 부품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1만 원 미만의 부품비와 모든 수리비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폐기대상 농기계와 무단으로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다.

송이도 주민 김모씨는 “농기계 수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많은데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수리로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수리는 매

년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을 찾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마도 이어 두 번째로 송이도에서 실시하였으며 추후 낙월도를 방문하여 수리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목포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목포시는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11,078건 19,891백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과 9월에 절반 각각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본세) 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3개월 동안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가 감면되며, 아직까지 감면신청을 못한 착한임대인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부재원인 만큼,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자진납부를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8월 31일까지 연장

### 5개 분야...일상·경제 망라 불합리한 규제 두 포함

함평군이 지난달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2020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8월 31일까지 2달간 연장한다.

지금까지 집계된 공모 접수율이 기대보다 저조한데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규제개혁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와 제도 등을 선제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일상과 경제 분야를 망라한 불합리한 규제 전반이 모두 포함됐다.

참여는 함평군 관내 기업이나 단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한 후 공모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정성·효과성·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수 안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상당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한 진정, 민원, 타기관 채택제안 등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기획감사실 법무팀(☎061-320-1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 무안군 몽탄면, ‘친환경 살균소독수 제조기’ 설치

### 코로나19 확산 예방 몽탄면사무소서 무료 배부

무안군 몽탄면(면장 최인배)에서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고자 면사무소 내 화학물질이 전혀 없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수 제조기를 설치하여 살균 소독수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독수가 필요한 주민들은 살균 소독수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

하여 직접 소독수를 담아가서 소독수를 전(터울)에 적신 후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문손잡이, 화장실, 변기 등을 닦아 소독하면 된다.

최인배 몽탄면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더운 날이지만 생



활 속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영암군 학산면, 망월천 제방 풀베기

### 지역주민 건강한 산책로·농기계 통행 소통 원활

영암군 학산면(면장 김명선)은 최근 망월천(지방하천) 제방 3.5km 구간에 대한 제방 잡풀 제거사업을 실시했다.

면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산책로 및 주변 간척지 경작 농가들의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망월천 제방에 최근 농기계 및 각종 차량 등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잡풀이 우거져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산면 농업경영인회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오는 17일까지 풀베기 사업이 완료되면 망월천 제방을 이용한 산책로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간척지 경작 농가들의 농기계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선 학산면장은 “이번 풀베기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주는 마음으로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 침수 피해 현장 점검

### “상습 침수지역 양수기 사전 설치로 피해 절반 줄여”

박우량 신안군수는 1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지역의 모든 양수기를 가동하여 신속한 배수를 지시하였다.

신안군에는 12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최대 134mm의 많은 비가 내려 압해, 지도, 임자, 지은, 안좌면 농경지 약 100ha가 침수가 발생하였다.

신안군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대형양수기 65대를 상습 침수지역에 장마철 전 사전에 현장에 설치

하였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 침수지역이 200ha 이상 발생하자 신안군은 상습 침수지역에 장마에 보가 시작되자 대형양수기를 현장에 설치 비가 내릴 때마다 사전양수를 통해 침수지역을 절반으로 줄였다.

박 군수는 오전 간부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압해도 벼 침수지역을 시작으로 안좌 등 침수 현장을 방문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양수 이후 병해충방제 예방 활동도 당부했다.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